



Scientific Publishing Unit



Buhūth

**Journal of Humanities,
Social Sciences & Education**

A peer reviewed Academic Journal

Volume 2 Issue 9 –September2022

ISSN 2735-4822 (Online) \ ISSN 2735-4814 (print)



Editor-in-Chief

Prof. Dr. Amira Ahmed Youssef
Professor of Linguistics
Ain Shams University

Co-Editor-in-Chief

Prof. Hanan Mohamed Elshair
Professor of Educational Technology
Faculty of Women, Ain Shams University

Managing Editor

Dr. Sara Mohamed Amin Ismail
Lecturer in Educational Technology
Faculty of Women, Ain Shams University

Assistant Editor

Ms. Heba Mamdouh Mukhtar Mohamed

Website

Ms. Nagwa Azzam Ahmed Fahmy

Ms. Doaa Farag Ghreab

Ms. Hager saied mohamed

Buhūth is a peer-reviewed academic e-journal published by the Faculty of Women, Ain Shams University. Buhūth encourages submission of original research from a wide range of disciplines such as social sciences, humanities and education



은유 식별 분석 방법 (MIPVU)을 적용한 한국어의 은유 연구

모나 세라그 엘딘 사이드 자흐란

박사과정 대학원생

아인샴스대학교 알-알순 대학,

한국어학과, 이집트

monaserag@aslun.asu.edu.eg

정영인

이만 알사이드 갈랄

한국어학과 명예교수

아랍어학과 정교수, 아인샴스대학교, 알-

우석대학교, 문화사회대학, 대한민국

알순대학(언어대학) 이집트

ds4nfr@ws.ac.kr

imanelsaidgalal@alsun.asu.edu.eg

초록¹

은유는 문학과 수사학과 관련이 깊은데도, 문학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된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언어적 은유는 인간의 이성과 사고의 체계적인 토대이므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Lakoff & Johnson, 1980). 사실, 은유는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과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생각을 비교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된다. 코로나 19 가 대유행이 된 이후에 은유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가 한국어에서 코로나 19 에 대한 언어적 은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은유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라코프 및 존슨 (1980)의 하향식 접근법이 아닌 상향식 접근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Steen et al.(2010b)의 Vrije Universiteit (MIPVU)의 은유 식별

¹이 논문을 심사해 주신 한국대학교의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 지적이 본 논문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었다.

절차를 한국어에 적용하고, 은유 식별 분석 방법의 장·단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MIPVU의 단계와 은유를 식별하고 분석하기 위해 MIPVU를 선택한 이유를 제시한다. 둘째, MIPVU를 한국어 신문에 실린 담화 텍스트의 어휘 단위에 직접 적용하여 분석한다. 여기서 다룰 문장 수와 어휘 항목 수는 각각 27개 문장과 490개 어휘 단위로 제한한다. 셋째, MIPVU를 적용할 때 나타나는 언어적 문제와 운용 방법상의 문제를 다룬다. 그 이유는 한국어가 교착어이기 때문이고, 또 한국어 사전 편찬학적 자료(사전, 말뭉치 등)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제기 이외에도 본 연구는 MIPVU를 한국어에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해결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에 적용한 MIPVU는 신뢰성이 있는 연구 방법이어서 이 방법이 한국어의 은유 식별에 매우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주제어: 인지언어학, 한국어, 개념적 은유, 언어적 은유, MIPVU 은유식별분석방법, 코로나 19.

1.서론

은유는 생활 속에서의 언어와 깊은 관계를 갖는다. 은유는 인간이 언어를 통하여 세계를 파악하고 인식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 기본이 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언어 생활에서 살아 있는 은유는 주요한 역할을 갖으며 생각보다 풍부한 언어 현상이다. 1980년대에 Lakoff와 Johnson은 은유가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풍부한지, 그리고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개념적 은유 이론을 통해 보여 주었다. 파악하므로 개념적 은유 이론

(Conceptual Metaphor Theory)을 세우고 *Metaphors We Live by*란 독창적인 책의 출판부터 확립되었다.

개념적 은유 이론 (이후 CMT)이 도입된 후에 CMT의 기본 원리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많아졌다. “Metaphor is not just a matter of language, but a matter of thought and reason”라는 핵심적인 원칙이 은유가 언어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관점에서 사고 및 이성 문제라고 주장하는 관점으로 바뀌며, 은유가 “our conceptual system is fundamentally metaphorical in nature governing our everyday thought, functioning, and action”라고 언급하고 우리 개념체계는 기본적으로 은유적이며 일상적인 생각, 기능 및 행동을 지배하는 것으로서 서술하였다. 따라서, Lakoff와 Johnson이 전통적인 은유, 즉, 문학 차원과 수사법 차원에서의 은유와 구별하여 개념화 차원에서 두고 ‘개념적 은유 (conceptual metaphor)’이라고 한다.

은유가 문학적이고 창조적인 장식으로서의 언어 문제라고 하는 주장하는 관점에서 은유가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사고 문제라고 주장하는 관점으로 바뀌는 것은 언어학 분야에서 혁명적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움직임에 따라 CMT는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수많은 연구가 CMT 연구들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이 은유는 언어의 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한 도구라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인간 사고에서의 개념적 은유를 검토해 보도록 인간의 언어 차원에서 은유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지만 CMT 의 압도적인 인기와, CMT 틀에서 수행된 연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자들은 개념적 은유에 대한 인식방법 및 분석방법에 대해 비판을 표시하였다 (Cameron & Low, 1999; Kövecses, 2011; Pragglejaz Group, 2007; Steen et al., 2010b). Lakoff 와 Johnson 의 『삶으로서의 은유』란 중대한 책도 비판을 많이 받았다. CMT 이론과 CMT 주장을 지지하는 데이터가 직관에 의하여 수집된 데이터이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다른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 축적방법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연구들이 은유의 개념적 차원에 대해 초점을 둔 나머지, 언어적 차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 다시 말하면, 연구들이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주로 개념적 은유에 중요성을 두게 하여 언어적 은유 (linguistic metaphor)의 소홀로 이어졌다. 그래서 은유의 개념적 차원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언어적 은유는 이차적인 위치에 두었다 (Steen et al., 2010b). 따라서, 연구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체계성·과학성·투명성·복제성이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은유 인식을 식별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Cameron & Low, 1999; Charteris-Black, 2004; Pragglejaz Group 2007; Steen et al., 2010b). 시도의 결과 중 하나로서 Pragglejaz Group (2007)이라는 연구원 그룹은 MIP (Metaphor Identification Procedure)라는 은유를 식별하는 방법을 도입했는데 2010년에 MIP 은유인식방법이 암스테르담 대학 (Vrije Universiteit, VU)에 의하여 확장되고 개선되는 작업이 수행되어 MIPVU

은유인식방법으로 제공되었다. MIPVU 은유인식방법 (이후 MIPVU 만)은 모든 종류의 실제적인 담화에서 어휘 단위 (lexical item)를 언어적 분석을 다루며 은유-관련 어휘 단위 (metaphor-related words)를 구별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MIPVU (Steen et al., 2010b) 는 실제 담화에 걸쳐서 모든 은유-관련 어휘를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절차를 통하여 수동 주석 (manual annotation) 으로 인식하여 분석한다. 이 절차는 CMT 처럼 개념적 은유부터 언어적 은유로 분석하는 하향식 접근법을 다루지 않고 표면적인 언어적 은유표현(surface-linguistic manifestation)부터 시작하고 은유로 나가는 상향식 접근법을 다룬다. 따라서, 언어적 은유는 맥락의 민감성 및 상황별로 개념화를 다루기 때문에 과잉일반화를 치르지 않는다. 더불어 구체적인 담화에서의 표면 언어적 은유가 탐구하면서 인간 사고에서의 기저가 된 개념적 은유 (underlying conceptual metaphor)를 가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맥락에서 은유를 인식하고 판단하기 위한 MIPVU 를 연구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대상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렇게 은유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직관에 달려 있지 않고 객관적인 은유인식방법에 의존할 수 있겠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게다가 MIPVU 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은유인식 도구이며 영어 다른 언어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있다. 한국어에 처음에 적용하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최근에는 세계 언어에 은유가 풍부하게 이용되는 현상은 2019년 12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코로나 19)는 세계보건기구 (WHO)에 발병이 보고된 이후에 줄곧 이어졌다. 코로나 19와 변종은 단순한 공중 보건 위기 아님으로써 세계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국제, 의학, 과학 등 여러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세계 인간이 대유행병과 관련하여 과학적·의학 정보, 사회적·경제적 현황과 공포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대중매체가 은유를 현저히 활용하였다. 다시 말하여, 코로나 19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을 잘 이해하도록 은유가 많아지는 모습이 대중매체에 현저히 보인다.

Semino (2021: 50)는 중국어권, 영어권, 프랑스어권 있어서의 정치 지도자가 코로나에 대해 선언할 때는 ‘이겨야 하는 적’, ‘싸우게 되고 이겨야 하는 것’, 그리고 ‘외계인 침략군 (alien invader)으로써 서술하면서 [바이러스는 전쟁이다 (VIRUS IS WAR)] 개념적 은유를 통해서 표시한다. 한국어권에서도 [바이러스 전쟁이다] 개념적 은유를 활용하여 ‘코로나와 싸움’, ‘바이러스와의 전쟁’, ‘코로나 19 첫 거점병원’ 등과 같이 코로나를 ‘적’과 비유하여 쓰인다 (김철규, 2021; 김훈기, 2021; 손달임, 2020; 이선희, 2021).

[코로나 19는 전쟁] 개념적 은유를 CMT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하나의 개념 영역 (conceptual domain)을 또 다른 하나의 개념 영역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Lakoff & Johnson, 1980: 5). 즉, 목표영역 (target domain)이 근원영역 (source

domain)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근원영역은 한 개념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은유적 표현을 끌어들이는 개념 영역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는 개념영역은 목표영역이다. 근원영역은 우리 일상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구체적·물리적이며 명확하게 윤곽이 주어지고 구조화된 경험인 반면, 목표영역은 표현하려는 영역으로서 추상적·심리적이며 그 윤곽이 불명확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 (Lakoff & Johnson, 1980; Kövecses, 2006). 따라서, '전쟁'은 상상하기 쉬운 직접적 경험이므로 근원영역이 되고, 코로나 19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간접적 경험이므로 목표영역이 된다. 그렇지만 CMT의 분석은 담론에서 벗어나고 직관에 의해 분석하므로 쟁점이 있다.

본 논문이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어떤 어휘 단위가 은유적으로 이용되어 있는지를 정하도록 문맥 속에서 고려해야 하는 관점을 가지면서, 탈맥락화된 자료 및 직관에 의한 예문을 넘어서 맥락화되고 실제 담화에서 나온 예문이 필요하다는 관점들을 갖는다. 그리하여, 본 논문의 시작은 구체적 맥락 속에서 어휘 단위들이다. 담화 종류가 많은데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많은 분야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담론의 종류인 대중매체의 뉴스 (Van Dijk, 1988)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MIPVU 는 은유-관련 어휘를 ² 탐구하는 은유인식방법이라서 인간사고에서 가정되는 개념적 은유나 인지과정 (cognitive processes) 및 인지결과물 (cognitive products)까지 살펴보지 않고 주장도 제기하지 않겠다. 따라서 본 연구가 MIPVU 를 한국어에 적용하여 담화에서 은유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게다가, MIPVU 는 적용하면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데 부차적인 목적이 있다.

1.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은유는 언어와 사고 및 우리 일상에서의 중심적인 측면이라는 관찰은 은유에 대한 분석하기에 관심을 기울어지었다. 이러한 연구들이 Lakoff & Johnson (1980)의 기본적인 교리에 의존하여 은유를 분석하는 데 직관에 기반을 두고 분석한다 (Steen et al., 2010b; Nacey, 2019). 그러나 CMT 의 직관-기반 접근법은 진정한 담화에서 은유의 발휘를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데 충족하는 도구가 아니다 (Semino, 2008). 은유를 인식하고 식별하는 분석 도구가 없을 때, 연구자들은 단지 CMT 처럼 그들 자신의 직관에 의존하고 분석해 온다. 직관은 불일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직관이 연구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심지어 같은 개인이 다른 시기에 내린 결정의 관점에서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Pragglejaz Group, 2007;

² MIPVU 가 '언어적인 은유'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은유-관련 어휘'란 용어를 사용한다. '언어적 은유'라는 용어는 그 짝이 되는 '개념적 은유'가 있어야 이 두 개의 술어 사이의 양분(兩分)이 존재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Steen et al. (2010b:7)에 따라 은유라는 것은 항상 상관적인 용어이고, '어떤 언어 사용자에게는 은유적이다'라는 말을 생략하여 의미를 갖는다.

Steen et al., 2010b). 따라서 담화에서 은유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탐구하는 시도가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Charteris-Black (2004)과 Pragglejaz Group (2007) 및 Steen et al. (2010b)이 있다. 본 연구가 여러 은유를 인식하는 도구 중에서 Steen et al. (2010b)'s MIPVU (Metaphor Identification Procedure Vrije Universiteit)³를 채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Steen et al., 2010b; Nacey et al., 2019; Krennmayr, 2013).

첫째, MIPVU 는 귀납적 접근이며 담화 자료를 수동적이고 상향식 접근에 의하여 분석한다. 즉, 담화 자료 분석부터 시작하여 한 담화 속에서 은유가 잠재적 (to be potentially metaphorical)으로 될 수 있는 어휘 단위를 인식한다. 둘째, MIPVU 는 개념적 구조와 언어적 구조 사이에 있는 연결을 거부하지는 않으면서 은유-관련 어휘 단위 (MRW)를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한 어휘 단위의 개념적 측면이나 기저를 이루는 교차-영역 사상 (underlying cross-domain mapping)을 다루지 않는다⁴. 이렇게 MIPVU 는 객관적·측정적·정밀적인 체재를 가지고 복제적이고 신뢰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다. 셋째, 직접 은유(direct metaphors)와 더불어 간접 은유 (indirect metaphors) 및 직유 (simile)까지 포함하는 은유인식방법이다⁵.

³ MIPVU 란 은유인식방법이 수행된 대학의 네덜란드어 이름의 축약형이다 (Steen et al., 2010b: 5). 즉, MIPVU 는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교 은유인식방법으로 번역한다.

⁴ 개념적 사상이나 개념적 은유를 처리하고자 하면 Steen's Five Step Method (2011)을 활용하면 된다.

⁵ MIPVU 전에 있는 MIP 는 직접 은유만 식별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담화에서 잠재적으로 될 수 있는 모든 은유를 찾는 데 있다. 따라서, MIPVU의 방법은 6개 단계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Steen et al., 2010b: 25-42).

1. 텍스트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은유관련-어휘 단위 (MRWs)를 찾는다.
2. 어떤 단어가 간접적으로 사용될 때는, 단어의 사용이 그 단어가 갖는 더 기본적인 의미로부터 교차-영역 사상의 어떤 형태로 잠재적으로⁶ 설명될 수 있는 경우, 그 단어를 은유적으로 사용된 것 (MRW)로 표시한다.
3. 어떤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 단어 사용이 텍스트 내에서 더 기본적인 지시대상 (referent) 혹은 주제 (topic)에 대해 교차영역 사상의 어떤 형태로 잠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우, 그 단어를 직접 은유 (MRW, direct)로 표시한다.
4. 3인칭 대명사와 같이 어휘, 문법적 치환의 목적으로 단어들이 사용될 때, 또는 생략된 것을 알 수 있게 단어의 형태가 삭제될 때, 그리고 더 기본적인 의미나 지시물 또는 주제로부터 교차영역 사상이 된 형태에 의해 잠재적으로 설명되는 치환이나 삭제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의미를 수행할 때 암시적 은유로 표시한다.

⁶ MIPVU 단계에서 '잠재적'이라는 말의 사용은 의도적인 것이다. 은유-관련 어휘 단위를 식별 시에 '잠재적'이라는 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Steen et al., 2010b: 26).

5. 어떤 단어가 교차영역 사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로 기능하는 경우, 이 단어를 은유-플래그(MFlag)로 표시한다.
6. 어떤 단어가 새로 형성된 것이라면 그 단어의 독립적 구성 부분을 개별적으로 2 단계로부터 5 단계에 따라 검사한다.

2. MIPVU의 실제 분석

2.1. 분석 자료⁷

지난 3년간 세계인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준 코로나 19와 그 변종에 대한 한국어 은유를 사례연구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가 다루는 MIPVU는 한 담화를 대상으로 하여 모든 어휘 단위를 어휘 단위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1개⁸의 신문보도를 대상으로 하여 Steen et al. (2010)의

⁷ 논의의 전개에 있어서 '어휘 단위'와 '단어'라는 술어를 통용하는 경우가 있다. 통용되는 경우에서 달리 지정한 바가 없다면 '단어'는 '어휘 단위'의 뜻을 가리킨다.

⁸ 본 연구가 오직 한 담화 텍스트만 선택하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연구 목적에 가장 적당한 연구 대상이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MIPVU 은유인식방법을 한국어에 적용하고 검증하는 사례연구이다. 이 텍스트는 27개의 문장 및 490어절이라는 충분한 자료를 준다고 본다. 둘째는 본 연구가 은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인지언어학에서 널리 쓰이는 Lakoff & Johnson (1987)의 하향식 접근법과 달리 상대적으로 새로운 Steen et al(2010)의 MIPVU란 상향식 접근법을 이용하여 은유를 연구한다. 보통 인지의미론적 연구는 '은유'를 검토할 때는 '개념적 은유'부터 시작하는 하향식 접근법을 이용한다. '하향식 접근법은 한 개 이상의 '개념적 은유'를 가지고 이와 관련된 언어적 표현을 찾아낸다. 그렇지만 본 연구가 사용하는 상향식 접근법은 언어 자료부터 시작하면서 '개념적 은유'를 전제하지 않는다. 즉, 은유가 잠재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은유-관련 어휘 단위를 찾아낸다. Steen et al.(2010b)의 MIPVU는 10년 이상 인지언어학 문헌에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문헌에서 아직

MIPVU 를 적용하고자 한다. 신문보도의 어절 수는 490 어절이고 토큰 수는 837 토큰이며 문장 수는 27 개로 구성된다. 본 연구가 Steen et al.(2010)의 MIPVU 를 한국어에 적용하는 처음 연구이므로 주요성이 있는데 더 큰 의의성이 한국어에 전개할 때는 운영 평가 및 검증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하여, MIPVU 는 영어 외에 다른 언어에 응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객관성·신뢰성·투명성· 과학성이 있는 분석 체제를 실증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2.2.MIPVU 에 의한 은유 식별 분석

MIPVU 를 한국어에서 은유를 식별하는 절차를 발휘하도록 실제적인 텍스트에서 한 문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예문은 조선일보 신문에 실린 오미크론 변종에 관한 신문보도 텍스트에서 추출되는 한 문장이다. 예문을 MIPVU 방법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예문 <7> : 국내 누적 확진자가 1750 만명에 육박하는 등 국민 3 명 중 1 명 꼴로 코로나 19 에 확진된 이력이 있어 신규 감염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ko.cho.omic.txt.1.sent.2]⁹

1 단계를 하위 단계 2 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하위 단계는 전체 텍스트를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어휘 단위를 정하는 것이다. 어휘 단위 경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쓰이지 않은 은유인식방법이다. 혹시 담화 텍스트를 어휘 단위를 하나하나 검토하는 일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면서 인지의미론 측면에서 낯선 방법이기 때문이다.

⁹텍스트의 문장은 [언어, 출처, 주제, 텍스트 번호, 문장 번호] 순서로 명명한다. 약어 ko: 한국어; 약어 cho: 조선일보; 약어 omic: omicron; 약어 txt.1: text 1; 약어 sent.2: sentence 2 를 가리킨다.

Steen et al. (2010b)의 ‘정서법을 따른 단어 (identical to the orthographic word)’ 기준에 따라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음과 같이 분별한다.

국내/ 누적/ 확진자가/ 1750 만명에/ 육박하는/ 등/ 국민/ 3 명/ 중/ 1 명/ 꼴로/
코로나 19 에/ 확진된/ 이력이/ 있어/ 신규/ 감염/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지만 Steen et al.(2010b)는 어휘 단위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국어에서 동일한 개념을 가리키지 않는다. 즉, 영어에서는 정서법을 따른 단어는 ‘word/lexical unit’이고 한국어에는 ‘어절’개념에 해당한다. 이 문제에 대해 <4 절> 에서 의논하겠다.

그 다음에 1 단계의 둘째 하위 단계를 거치면 은유-관련 어휘 단위(MRW)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즉, 텍스트 맥락 속에서 어휘 단위의 의미를 별개로 파악하고 나서 그 어휘 단위의 의미의 기본 의미¹⁰를 찾아서 비교한다. 다시 말하여, 각각 어휘 단위의 기본 의미와 텍스트에 의해 만들어진 문맥 의미를 상대하여 고려하는 것이다. 어휘 단위는 텍스트 외의 다른 맥락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기본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면 은유관련-어휘 단위를 표시하는 반면에 문맥 의미는 기본 의미와 일치하면 MRW 로 보지 않는다. 예문 <가> 에서 어휘 단위들을 다음으로 분석하고자 한다.¹¹

1. 국내: 명사

¹⁰기본 의미를 따지기 위해서 단어를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대사전』을 찾아서 정한다. 달리 언급이 없으면 모든 기본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추출되는 의미들이다.

¹¹본고에서는 『표준 국어대사전』은 『표준』으로, 『연세 한국어사전』은 『연세』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고려』로 줄여 부르기로 한다. 『우리말샘』을 그대로 부르기로 한다.

ㄱ) 기본 의미¹²: 나라의 안.

ㄴ) 문맥 의미: 한국 안에.

ㄷ) MRW 표시 여부: MRW 아니다.

2. 누적: 명사

ㄱ) 기본 의미: 포개어 여러 번 쌓음. 또는 포개져 여러 번 쌓임.

ㄴ) 문맥 의미: ‘국내에서 확진자가 누적된다’는 것이란 확진자가 추상적으로 포개어 여러 번 쌓인 것이다. 즉,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뜻이 구체적인 기본적인 것이다.

ㄷ) MRW 표시 여부: MRW 이다.

3. 확진자가: 명사 + 조사

ㄱ) 기본 의미: 『표준』에서 검색결과가 없다. 『연세』에서도 없다. 이에 따라서 『우리말샘』에서 검색하고 ‘질환의 종류나 상태를 확실하게 진단받은 사람’의 뜻풀이를 찾는다.

ㄴ) 문맥 의미: ‘질환의 종류나 상태를 확실하게 진단받은 사람

ㄷ) MRW 표시 여부: MRW 아니다.

4. 1750 만명에¹³: 아라비아 숫자 + 수사 + (사람을 세는) 단위명사 + 조사

¹² 『표준』 뜻풀이 항목 중에서 기본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정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전을 검색하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MIPVU 조항에 의하면 기본 의미를 정하기 위해서 말뭉치 기반 현대 언어 사전에서 단어를 검색하자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말뭉치 기반 『연세』를 활용하고자 한다.

ㄱ) 기본 의미: 1750 만.

ㄴ) 문맥 의미: 사람의 수는 1750 만 명이다.

ㄷ) MRW 표시 여부: MRW 아니다.

5. 육박하는: 동사

ㄱ) 기본 의미: 바짝 가까이 다가붙다.

ㄴ) 문맥 의미: 확진자가 1750 만 명에 다가온다. 즉, '1750 만 명' 대상의 쪽으로 더 가까이 된다.

ㄷ) MRW 표시 여부: MRW 이다. 구체적 의미에서 벗어나고 확진자 수는 1750 만 명에 이른다는 뜻으로 MRW 로 본다.

6. 등: 의존명사

ㄱ) 기본 의미: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ㄴ) 문맥 의미: 그 밖에도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ㄷ) MRW 표시 여부: MRW 아니다.

7. 국민: 명사

ㄱ) 기본 의미: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으로 가진 사람.

ㄴ) 문맥 의미: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ㄷ) MRW 표시 여부: MRW 아니다.

¹³ 한국어 맞춤법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와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각각 띄어 씀이 원칙이며, 붙여 씀을 허용한다.

8. 3 명: 아라비아 숫자 + (사람을 세는) 단위 명사

ㄱ) 기본 의미: 3 명.

ㄴ) 문맥 의미: 3 명.

ㄷ) MRW 표시 여부: MRW 아니다.

9. 중: 명사

ㄱ) 기본 의미: 여럿의 가운데.

ㄴ) 문맥 의미: 여럿의 가운데.

ㄷ) MRW 표시 여부: MRW 아니다.

10. 1 명: 아라비아 숫자 + (사람을 세는) 단위 명사

ㄱ) 기본 의미: 1 명.

ㄴ) 문맥 의미: 1 명.

ㄷ) MRW 표시 여부: MRW 아니다.

11. 꼴로: 명사+ 조사

ㄱ) 기본 의미: ‘겉으로 보이는 사물의 모양’이다.

ㄴ) 문맥 의미: ‘어떤 형편이나 처지’ 뜻풀이에 해당한다.

ㄷ) 비교: 기본 의미 ‘겉으로 보이는 사물의 모양’에서 은유에 따라 확대된
의미이다. MRW 로 본다.

12. 코로나 19 에: 명사 + 조사

ㄱ) 기본 의미: 1) [corona 이탈리아어 (원어)] 『음악』 악보에서, 음표나 쉼표의 위나 아래에 붙어서 본래 박자보다 두세 배 길게 늘어 연주하라는 기호. 페르마타 (Fermata). 2) (corona 영어 (원어)) 「1」 『천문』 태양 대기(大氣)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얇은 가스층. 온도는 100만 °C 정도로 매우 높다. 개기 일식 때에는 맨눈으로 볼 수 있으며, 보통 때에는 코로나그래프 따위로 관측할 수 있다. ≒ 광관, 백광. 「2」 『전기·전자』 두 전극 사이에 높은 전압을 가하면 불꽃을 내기 전에 전기장의 강한 부분만이 발광하여 전도성(傳導性)을 갖는 현상. 송전선 상호 간이나 송전선과 대지 사이에서 일어난다. =코로나 방전.¹⁴

ㄴ) 문맥 의미: ‘코로나바이러스’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ㄷ) MRW 표시 여부: MRW 로 사용된다. 『표준』에서의 [음악] 및 [천문]과 관련된 의미에서 벗어나고, 요즘에 정상화된 과학적 ‘코로나바이러스’ 의미를 제시하므로 MRW 로 본다.¹⁵

13. 확진된: 동사

¹⁴ ‘코로나’를 찾았을 때는 『연세』에서도 결과가 없었지만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사전의 『우리말샘』에 다음으로 등록되어 있다. ‘생명 아르엔에이 (RNA)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 포유류에게 감기, 상기도염(上氣道炎), 위장염을 일으킨다.’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서술된다.

¹⁵ 바이러스 모양이 왕관을 닮았다고 해서 라틴어로 왕관을 의미하는 ‘coronam’ 이름을 얻었다. 바이러스의 영문 표기는 Co-vid-19를 쓰는데 한글은 ‘코로나 19’라고 한다. ‘코비드’라고 쓰게 되지 않은 이유 중에서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인 데다가 코로나 발생부터 한국 사람이 ‘코로나’라는 말에 익숙해져서 만일 ‘코비드’라고 하면 국민들이 새로운 질환처럼 받아들일까 봐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으며 질병관리본부 건의를 수용해 ‘코로나 19’라고 부르기로 했다. ‘코로나 19’라는 단어를 MIPVU의 6조항에 따라 ‘새로 형성된 것 (신조어)’로 본다. 물론 ‘코로나 19’를 은유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고유명사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한다.

ㄱ) 기본 의미: 확실하게 진단을 하다.

ㄴ) 문맥 의미: 코로나 19 를 확실하게 진단을 하다.

ㄷ) MRW 표시 여부: MRW 아니다.

14. 이력이: 명사 + 조사

ㄱ) 기본 의미: 지금까지 거쳐 온 학업, 직업, 경험 등의 내력.

ㄴ) 문맥 의미: 지금까지 거쳐 온 내력이다.

ㄷ) MRW 표시 여부: MRW 아니다.

15. 있어: 형용사

ㄱ) 기본 의미: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ㄴ) 문맥 의미: 확인된 이력이 존재한다.

ㄷ) MRW 표시 여부: MRW 아니다.

16. 신규: 명사

ㄱ) 기본 의미: 새로운 규칙이나 규정.

ㄴ) 문맥 의미: 새로운 코로나 19 란 감염.

ㄷ) MRW 표시 여부: MRW 로 사용한다. '신규'가 구체적인 물건이나 사물을 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MRW 로 본다. 문맥 의미에서 '신규'가 '새로이 되는' 의미를 가지지만 '확진자'와 사용할 때는 구체적 의미에서 벗어나고 추상적 의미로 기울어져서 사용한다. 이에 비추어 문맥 의미와 기본적인 의미를 서로 연관을 지어 유추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MRW 로 본다.

17. 감염: 명사

ㄱ) 기본 의미: 나쁜 버릇이나 풍습, 사상 따위가 영향을 주어 물이 들게 함.¹⁶

ㄴ) 문맥 의미: 병원체인 미생물이 동물이나 식물의 몸 안에 들어가 증식하는 일.

병원균이 몸에 옮겨서 병에 걸리는 것.

ㄷ) MRW 표시 여부: MRW 로 본다.

18. 위험도가¹⁷: 명사 [합성명사 = ‘위험’ (명사) + ‘도’(명사)]+ 조사

ㄱ) 기본 의미: 『고려』에 따라 ‘해로움이나 손실의 우려가 있는 정도.’로 정의되고, 『우리말샘』에 의해 ‘위험한 정도’로 정의된다.

ㄴ) 문맥 의미: 코로나 19 의 위험한 정도.

ㄷ) MRW 표시 여부: MRW 아니다.

¹⁶ 『표준』에서 ‘감염’을 찾을 때는 뜻풀이 2 개의 항목이 나온다. 그 중 항목 1 은 기본 의미인데도 항목 2 번은 모국어 화자에게 더 관습화되는 널리 쓰이는 의미이다. 이것을 『연세』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말뭉치 기반 사전으로써 뜻풀이들을 빈번하는 빈도에 따라 열거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감염’의 기본 의미는 관습화되고 이용 비율이 높은 ‘병원균이 몸에 옮겨서 병에 걸리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것을 한자로 확인할 수 있다. ‘감염’은 ‘느낄 감, 물들일 염’에 해당하니 기본 의미는 『표준』의 뜻풀이 항목 1 번이 된다. 이에 비추어, ‘감염’의 기본 의미와 질병과 관련된 문맥 의미를 대조해 보면 MRW 로 보는 것이 분명하다.

¹⁷ 『표준』과 『연세』에서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즉, 사전에서 ‘위험도’를 한 어휘 단위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서 뜻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방법이 있다. 첫째는, ‘위험도’를 더 작은 어휘 단위로 분석하고 각각의 어휘 단위의 뜻을 찾아서 단어의 의미를 정하거나, 둘째는 다른 사전에서 검색해 보고 뜻을 찾는 것이다. 첫째 방법을 하면 ‘위험도’를 두 개의 실질형태소로 분석해서 복합어이며 합성어로 보겠다. ‘위험도’는 ‘위험(명사) + ‘도(명사)’로 구성된 어휘 단위다. 『표준』에 의하여 ‘도(度)’를 의존명사가 아닌 명사로 보고 ‘어떠한 정도나 한도’의 뜻을 가진다. 둘째 방법을 따르면 『고려』 및 『우리말샘』에서 검색해 보고 기본 의미를 정하는 것이다.

19. 낮아졌다¹⁸: 동사 [합성동사 = 낮다 (형용사) + -아 (연결어미)+ 지다(동사)]
가) 기본 의미: 『고려』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나 다른 것보다 적게 되거나 아래에 있게 되다.’로 정의된다.
나) 문맥 의미: 위험도가 적게 된다.
다) MRW 표시 여부: MRW 아니다.
20. 분석이: 명사 + 조사
가) 기본 의미: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
나) 문맥 의미: 위험도의 원인을 살펴보고 개별적인 요소로 나누는 것이다.
다) MRW 표시 여부: MRW 아니다.
21. 나온다: 동사
가) 기본 의미: 안에서 밖으로 오다. (구체적으로)
나) 문맥 의미: 처리나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생기다.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다.¹⁹

¹⁸ 『연세』와 『표준』 사전에서 검색 결과가 없다. 즉, '낮아지다'는 두 사전의 표제항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데 그의 반의어인 '높아지다'는 두 사전에 표제항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들이 왜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유방, 2018: 127). 『우리말샘』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낮아지다'는 합성동사로 취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래서 '낮아지다'를 분석하고 지니는 구성 요소들의 의미를 보고 의미를 정했으면 좋다.

¹⁹ '나오다'의 문맥 의미는 『표준』에 의하여 7번째 의미로 나오지만 기본 의미가 아니다. 즉,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기본 의미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즉,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뜻풀이는 은유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 용법이 관습화 되어 사전에서 등재되어 있다는 뜻이다. 원래 사전들이 한 단어의 모든 의미를 열거하는데, 그 의미가 문자적이든 은유적이든 간에 단어의 모든 가능한 의미를 나열한다. 그래서, 하나의 표제어 항목에 담긴 뜻풀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본 의미와 은유적 의미를 분별시켜야 답화 문맥에서 MRW 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다.

다) MRW 표시 여부: MRW 로 사용된다. 문맥에서 ‘분석이 추상적으로 나온다’는 뜻으로 ‘이루어지다’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예문 분석에 따르면 MRW 로 사용된 어휘 단위는 ‘누적, 육박하는, 코로나 19, 신규, 꿀, 감염, 나온다’의 7 가지로 찾을 수 있다. 기본 의미와 문맥 의미를 서로 비교하면 MRW 로 표시되는 어휘 단위들이다. 그런데 MIPVU 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착어에 속하는 한국어에 적용하는 것이 예상했던 것처럼 단순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사전 특징 때문에 기본 의미를 정하는 점에서도 어려움이 나온다. 본 논문 목적은 MRW 를 찾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MIPVU 를 한국어에 전개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떤 조항을 한국어에 수정하는지를 검토하는 데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조금 살펴보았는데 <4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3. MIPVU 의 한계 및 가능성

MIPVU 는 영어를 주대상으로 개발된 방법론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같은 개별 언어에 적용할 때는 한국어만의 특수성과 개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어의 언어체계는 영어와 다르고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전 편찬상의 참고자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MIPVU 의 한계는 크게 연구 운영상 쟁점(operationalisation issues)과 언어상 쟁점(linguistic issues)으로 나눌 수 있다.

3.1. 방법론의 적용의 한계

연구 운영상 쟁점은 기본적으로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전 편찬학적 자료 (lexicographic resources)와 관련이 있기도 하고, 데이터 주석과 관련이 있기도 한다. 이 단계는 MIPVU 절차의 기준들을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MIPVU 절차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몇 개 기준을 조절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1.1. 언어사전의 선택

언어사전이란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되는 참고서이다. 국어사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바른 국어생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편찬된 교육적·규범적 역할을 하는 사전은 국립국어원이 펴낸 『표준 국어 대사전』이다. 『표준』은 국가 주도형 사전이며 표제어 개수는 2021년 기준으로 422,895 개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표준』을 활용하고 단어 경계 정립, 단어 맞춤법, 단어 기본의미와 문맥의미를 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른 이유도 있다.

첫째, 『표준』은 종이사전과 전자사전의 모양을 띠 있으므로 연구자들에게 『표준』을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 둘째, 연구의 일관성과 재현가능성을 충족시키도록 널리 사용되고 쉽게 다가가는 사전이란 점, 셋째 언어의 표준을 제시한다는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 등을 제시하고 충족시키는 점에 있어서 MIPVU로 은유를 식별할 때는 『표준』이 중대한 견실이 있으면서, 어휘 단위 경계 정립과 어휘 단위의 기본 의미를 정하기에 『표준』은 초석이 되겠다고 본다. 더불어 『표준』은 디지털화되는 사전으로써, 즉, 온라인 사전으로, 앱 사전으로

존재하는 사전으로써 텍스트 전체 어휘 단위를 하나하나 연구할 때는 종이사전에 비해 시간을 절약하는 점에서도 이유가 있다.

그런데도, 『표준』은 문제점이 없는 사전이 아니다 (조재수, 2000). 뜻풀이나 맞춤법과 띄어쓰기와 관련된 문제점이 가끔 있어서 『표준』과 더불어 다른 사전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 MIPVU 원칙에 따라, 말뭉치를 기반으로 편찬된 사전을 일차적 사전이 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도 본 연구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본 연구가 『표준』을 일차적으로 하고 나서, 말뭉치를 기반하여 펴낸 『연세』를 이차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연세』의 표제어 개수가 『표준』에 비해서 적으면서 표제어를 말뭉치에 쓰인 빈도순으로 선정하기 때문이다. 즉, 말뭉치에 쓰인 어휘만 표제어로 포함시킨다. 그리고 『연세』 특징 중에는 『표준』과 달리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를 배제하고 언어학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뜻풀이를 기술한다 (유현경, 2012: 36).

더불어, 표제어의 뜻풀이와 관련하여, 『연세』는 말뭉치 기반 사전으로서 말뭉치에서 빈도순에 따라 용례 분석을 통한 의미와 용법을 배열한다. 즉, 비율에 기반하므로 한 단어의 뜻풀이를 배열할 때는 항상 기본 의미부터 뜻풀이를 배열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뜻풀이가 기본적인지, 그리고 어떤 뜻풀이는 다의성이나 확장된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위 예문 분석을 살펴보았듯이 ‘감염’이란 어휘 단위 경우에 문제가 있었다. 『연세』에 따라서 ‘감염’이란 단어의 경우에는 ‘병원’과 관련된 의미가 관습화된 널리 쓰이는 의미로써 1 항목으로 배열하였다.

하지만 『표준』은 ‘평균’과 관련된 의미는 2 항목으로 수록한다. 만약 연구자가 『연세』만 참조하면 ‘감염’의 기본 의미를 틀리게 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게다가, 『연세』²⁰는 현대 한국어를 반영하는 말뭉치 기반 사전이므로 고어(古語)가 아닌 일상어에서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가 담화에서 나오면 검색결과가 없을까 한다. 없으면 일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질까 싶다. 따라서 『연세』는 2 차적으로, 『표준』은 1 차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²¹

3.1.1.1. 원전 텍스트의 주석 처리

MIPVU는 은유를 실제적 담화-텍스트에 있어서 식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신문에서 실제적으로 나오는 텍스트이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은유를 식별하기 위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텍스트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석을 해야 한다. 주석이란 원시 텍스트에 언어학적 정보를 부여하여 주석 말뭉치로 만드는 작업이다. 본 연구가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2 가지 주석 과정은 걸친다. 첫 번째는 품사 태깅이고, 두 번째는 은유-관련 어휘 단위(MRW) 여부 태깅이다. 그리고 품사 태깅이 세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순수 자동 주석, 자동 주석 후

²⁰ 2 차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이유 중에도 MIPVU가 말뭉치 기반 사전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말뭉치 기반 사전은 문맥 의미를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이유도 있다.

²¹ 만일 『표준』과 『연세』를 검색해 보다가 단어의 뜻풀이나 단어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고려대』를 3 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말샘』과 같은 개방형 사전을 뜻풀이나 단어 경계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개방형 사전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수정하는 사전이기 때문이다.

수작업 수정, 순수작업 주석이다 (McEnery & Hardie, 2011). 본 연구가 순수작업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한국어 품사 태깅을 위해서 사용하기 쉬운 오픈 소스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 의미를 정하기 위해서 『표준』을 검색해 볼 거니 품사를 동시에 확인하고 태깅할 수 있다. 언어 주석을 기록하기 위해서 엑셀을 사용한다. 다음 <표 1>로 발휘하도록 한다.

<표 1> 분석 사례 샘플

어휘	토큰	토큰 ID	대분류 (5언)	소분류 (9 품사)	계분류	표준국어대사전	연제한국어대사전	기본 의미	문맥 의미	해석	MRW	비고
국내	국내	ko.cho.omic.txt1.token.17	체언	명사	보통명사	『명사』 나라의 안.	(명사) 한 나라의 안.	나라의 안.	same	same	notM	-
누적	누적	ko.cho.omic.txt1.token.18	체언	명사	보통명사	『명사』 포개어 여러 번 쌓음. 또는 포개겨 여러 번 쌓임.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포개어 여러 번 쌓음 또는 포개겨 여러 번 쌓임.	국내에서 확진자가 누적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포개어 여러 번 쌓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포개거나 모아서 쌓인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본 의미를 벗어나서 MRW로 본다.	MRW	-	
확진자가	확진자	ko.cho.omic.txt1.token.19	체언	명사	보통명사	검색 결과가 없다.	검색 결과가 없다.	[우리말샘] 『001』 길잡의 종류나 상태를 확실하게 진단받은 사람.	same	same	notM	『표준』에 표제항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확진자란 말은 복합어이며 파생어이다. 다음과 같이 분석하기로 한다. 확진자는 '확진' 어근과 '-자' 접미,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파생어로 본다. 이에 따라서 '확진' + '-자' 따로따로 검색해 보는 것이 낫다.
1750만명에	가	ko.cho.omic.txt1.token.20	관계언	조사	격조사	i	i	i	i	i	i	조사로 어휘적 단위로 보지 않고 분석에서 제외한다.
육박하는	1750만	ko.cho.omic.txt1.token.21	체언	수사	숫자	1750만	1750만	1750만	1750만	same	notM	-
등	명	ko.cho.omic.txt1.token.22	체언	명사	의존명사	『의존 명사』 사람을 세는 단위.	(다른 숫자) [누를 나타내는 말 뒤에 써서] 사람이 숫자를 세는 말	사람을 세는 단위.	same	same	notM	-
국민	에	ko.cho.omic.txt1.token.23	관계언	조사	격조사	i	i	i	i	i	i	조사로 어휘적 단위로 보지 않고 분석에서 제외한다.
3명	육박하는	ko.cho.omic.txt1.token.24	용언	동사	동사	『동사』 [..에] [..을] 바삭 가까이 다가붙다.	1. (어떤 수준에) 매우 가까이 다가간다. 가까이 바삭 따라붙다. [격률: 10:2에-를 육박하다]	바삭 가까이 다가붙다.	확진자가 1750만 명에 가까이 다가붙는다는 구체적 기본적인 의미를 떠나서 추상적인 대상으로 즉, 확진자 수 쪽으로 더 가까이 된다.	MRW	-	어떤 대상으로 더 가까이 다가붙는다는 구체적 기본적인 의미를 떠나서 추상적인 대상으로 즉, 확진자 수 쪽으로 더 가까이 된다. 1750만명에 이룬다는 맥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3.2. 한국어 적용의 문제

MIPVU 원칙을 한국어에 전개하여 적용할 때 그 쟁점이 주로 어휘 단위 경계와 기본 의미, 문맥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다. 주요 원인은 한국어의 언어 특성 때문이다. 한국어는 게르만어족이자 굴절어인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고 첨가어에 속해서 영어와 차이가 많고 해결해야 할 쟁점이 있을 것이다. 특히 어휘 단위 경계 정립과, 기본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규정하기에 있다. 따라서 MIPVU 절차를 한국어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3.2.1. 어휘 단위의 경계 설정

어휘 단위 경계에 대한 쟁점은 MIPVU 에서 제일 중요하다. MIPVU 에 있어서는 단어가 은유적 용법을 검사하는 분석 단위이자 연구 대상이다. 그렇지만 Steen et al. (2010b: 27)에 따라 “이론적 이유로 단어를 어휘 단위라고 부르하고자 한다”고 언급한다. Steen et al. (2010b: 27) 가 어휘 단위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는 이유가 담화의 구성요소의 상호 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다. 즉, “담화 분석에 있어서 단어들 (words), 개념들 (concepts), 지시대상(referents)들 사이에 기능적 관계가 있다”고 서술하므로 어휘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형태소 (morphemes)나 구 (句, phrases)와 같은 언어 요소들을 제외한다.

Steen et al.(2010b) 및 Nacey et al. (2019) 에 따르면 ‘어휘 단위’란 “the lexical unit is identical to an orthographic word – that is, a written sequence of letters with spaces at the end and none in the middle” 로 정의한다. 즉, ‘어휘 단위’는 정서법을 따르는 단어와

같으며 끝에는 공백이 있는데 중간에 공백이 없는 일련의 문자들이다. 그러나 영어와 달리 이 개념은 한국어에서 ‘단어’ 개념에 해당하지 않고 ‘어절(語節)’ 개념에 해당한다. 한국어에서 ‘어절’이란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하는 말토막’으로 서술한다. 그런데도 교착에 속하는 한국어의 어절 개념은 ‘여러 가지 형태소가 융합되어 이어지는 한 덩어리’로 정의한다. 이 개념은 MIPVU 가 가리키는 어휘 단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한국어에서 어휘 단위를 정서법을 따른 단위로 보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MIPVU 가 어휘 단위 개념을 한국어의 특성에 맞추어서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MIPVU 를 한국어에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휘 단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한국어에서는 ‘어휘 단위 (lexical item)’라는 술어는 전통적인 국어학 분야인 형태론·통사론·어휘론·단어 형성론과 같은 분야에서 찾기 어려운 용어이다. 한편, 기존의 국어 논의에서는 품사 (parts of speech/word class), 단어 (word), 어휘 (vocabulary), 어휘적 단어 (lexical word)과 문법적 단어 (grammatical word), 어휘소 (lexeme), 어휘부 (lexicon) 라는 술어들이 자주 언급된 개념들이다. ‘어휘적 항목 (lexical item)’이란 술어가 존재하는데도 언어학적 분야와 연구 대상 및 목적에 달리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니까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므로 대신에 ‘어휘 단위’란 술어를 사용하기로 선호한다. 그리하여 ‘어휘 단위’란 개념을 어떻게 한국어에 적응할 수 있는지 관찰하기로 한다.

한국어 기존 논의에서 단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는 어렵고 혼란스러운 개념이다 (한정한, 2011; 오규환, 2016). 형태적 기준, 기능적 기준, 의미적 기준 등 다양한 분류 체계에 따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남기심·고영근 외(2020: 23-26)에서도 문법적 견해에 따라 분석적 단어관, 절충적 단어관, 종합적 단어관으로 다를 수 있고 단어의 정립 기준이 달라진다. 그래도, 이러한 단어의 개념과 정립 기준은 모든 단어 구성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단일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MIPVU 는 단일어뿐만 아니라 다단어 구성(multi-word constructions), 구동사 (phrasal verbs), 복합어 (compounds)까지 포함하고 은유적 용법을 확인하려 한다.

오규환 (2016)은 기존의 한국어 단어 형성론에 있어서는 화자가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형성한 단위가 언제나 단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단어 형성 부문과 문장 형성 부문이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점 등에 출발하면서 ‘어휘 단위’라는 술어를 제안한다. 오규환 (2016)에 의존하여 ‘어휘 단위’라는 개념에서 ‘어휘적 단어’와 ‘어휘적 구성’을 한데 묶어서 ‘어휘 단위’라는 범주에 놓는다. 그리하여, 오규환(2016)는 문법적 단어 (조사 및 어미)를 제외하고²², 단일어와 복합어²³로 구성된

²² 본 연구가 조사는 문법적 단어 하나 범주로 보니 위 예문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²³ 오규환(2016: 16)에 의해 복합어는 합성어, 파생어, 통사적 결합어 (syntactically combined word)를 아우르는 범주로 보며, 단일어의 짝이 되는 범주이다. 기존 논의에서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아우르는 범주이다.

어휘적 단어 및 어휘적 구성²⁴ (관용 표현 idioms, 복합 구성 complex constructions, 임시표현 nonce expressions)을 포함시키고 ‘어휘 단위’란 개념을 아우른다.

오규환(2016)의 ‘어휘 단위’의 정의와 개념을 관찰해 보면 MIPVU 의 lexical unit 의 정의와 개념을 가장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IPVU 를 한국어에 전개하도록 오규환(2016)의 어휘 단위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국립국어원 『맞춤법 통일안』 및 『표준』도 어휘 단위/단어의 경계를 규정하도록 확인하고자 한다.

3.2.2. 의미 규정의 문제

MIPVU 에 따르면 어휘 단위의 기본 의미는 더 구체적인 의미다. 다시 말하여, 더 쉽게 상상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인간-분위 의미이고, 신체 활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의미이다. MIPVU 의 은유 인식·결정 방식은 기본 의미와 문맥 의미를 비교하고 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 의미는 규정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뜻풀이는, MIPVU 에서 활용하는 Macmillan Advanced Dictionary 에 비해서 뜻풀이 기술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덜한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한국어가 첨가어 언어로써 형태소가 이어져서 융합하는 언어이므로 형태소 기반한 언어(morpheme-based language)인 한편에, 영어는 굴절어로써 단어 기반한 언어(word-based language)이다. 이러한 이유로 『표준』에서

²⁴오규환 (2016: 16)이 기존 단어 형성론에서 ‘통사적 구성’으로 가리켰던 다단어 구성을 본다.

‘축구팀, 농구팀, 야구팀’와 같은 단어는 한 표제어 (복합어)로 찾을 수 있는데 연구 사례에서의 ‘교수팀’ 등은 한 표제어로 찾을 수 없으면서 두 단어로 쪼개고 봐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어학과’ 및 ‘과학과’인데 전자는 한 표제어로 인정되어 있는데 후자는 한 표제어로 인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형태소 기반 언어가 단어 기반 언어에 비해서 형태소가 더 많고 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여러 가지 구성된 형태소들을 확인하고 상호 참조(cross-reference)가 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낮아지다’는 ‘낮- + -아지다’로, ‘교수팀’은 ‘교수 + 팀’, ‘위험도’는 ‘위험 + 도’와 같이 쪼개고 봐야 하면서 구성된 형태소를 서로 참조해야 한다. 둘째는, 국어 사전들을 Macmillan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처럼 학습자를 위해서 제작하지 않으면서 모국어를 위해서 제작하는 데 사전 사용자에게 기존 언어지식을 전제한다. 따라서, 표제어에 대한 언어 정보를 항상 자세히 기술하지 않는다.

한편, 어휘 단위의 문맥 의미란 사용되는 특정한 담화·텍스트 속에서 정한 의미로 정의한다. 어휘 단위의 문맥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 담화·텍스트 전체를 읽고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텍스트에 의해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표준』을 확인하고 뜻풀이 중에서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표준』에 있으면 이 뜻풀이가 언어 사용자들에게 관습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위에서 살펴봤던 ‘감염’이란 어휘 단위의 경우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휘 단위의 문맥 의미가 『표준』에서 찾을 수

없으면 새로운 은유 (novel metaphor)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MIPVU 에 따라서 새로운 은유는 기본 논의에서처럼 중요하지 않다. Lakoff & Johnson (1980)의 의식에서 출발하면서 은유라는 현상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한 견해를 갖기 때문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은유가 언어사용자에 따라, 수용자 의도·판단, 그리고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사용 영역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MIPVU 를 통해서 실제적인 한국어 담화·텍스트에서 은유를 식별하고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MIPVU 는 한국어에서 은유 식별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MIPVU 는 한국어에 활용할 때는 직관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물론 알타이어족이자 첨가어인 한국어를 전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MIPVU 의 기존 원칙과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한국어 어휘·형태·통사적인 특성을 맞추어서 조절하는 데도 효과성이 있다.

본 연구가 MRW (은유-관련 어휘 단위)를 검색해 봤을 때는 대부분이 관습화된 은유로서, 코로나-19 를 묘사하기 위한 은유는 드물었다. 이 점에서는 Lakoff & Johnson(1980)의 개념적 은유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서 본 연구의 중요성도 나온다. 본 연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은유를 일관성이고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점에서 논의의 출발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향후의

연구 개선으로 점차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 풍부한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철규(2021). 신문 사설의 코로나 19 사태 관련 은유적 표현에 의한 부각과 은폐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 Vol. 28, No. 2, (49-78).
- 김태종 (2020).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 19 언론보도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20, No.5.
- 김훈기(2021). ‘바이러스와의 전쟁’ 은유의 의미와 한계. 수사학 Vol. 40.
- 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2020). 표준국어문법론. 전면개정판 5쇄. 한국문화사.
- 손달임(2020). 코로나 19 관련 뉴스 보도의 언어 분석: 헤드라인에 반영된 공포와 혐오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Vol. 51, (137-166).
- 유방 (2018). 『표준국어대사전』의 ‘X 어지다’류 합성동사에 대한 고찰. 한민족어문학.
- 이선희(2021). 현대중국어 코로나 19 언론 보도의 전쟁 은유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Vol. 66.
- 이소영(2014). 텍스트 속의 은유: 텍스트 내에서 은유를 인식하는 방식.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일어문화권연구, Vol.23, (331-357).
- 임지룡(2017). 한국어 의미 특성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 Kövecses, Zoltán (2006). *Language, Mind, and Culture: A Practical Introduction*.

- Krennmayr, T. (2013). Top-down versus bottom-up approaches to the identification of metaphor in discourse. *metaphorik.de*, Vol. 24, (7-36).
- Lakoff, G., & Johnson, M. (1980/2003). *Metaphors we live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ow, G., Todd, Z., Deignan, A. Cameron, L. (Eds). (2010). *Researching and Applying Metaphor in the Real World*. John Benjamins. Amsterdam/Philadelphia.
- McEnery & Hardie (2011). *Corpus linguistics: Method, theory, and practice*.
- Pragglejaz Group (2007). MIP: A method for identifying metaphorically used words in discourse. *Metaphor and Symbol*, 22 (1), (p.1-39).
- Semino, E. (2021). "Not Soldiers but Fire-fighters": Metaphors and Covid-19. *Health communication*, 36(1).
- Steen, G. (1999). Metaphor and discourse. In Cameron, L. & Low, G. (Eds.), *Researching and applying metaphor* (p. 81–10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en, G. J., Biernacka, E., Dorst, A. G., Kaal, A. A., López-Rodríguez, I. and Pasma, T. (2010c). Pragglejaz in practice: Finding metaphorically used words in natural discourse. In: Low, G., Todd, Z., Deignan, A., Cameron, L. (eds). *Researching and Applying Metaphor in the Real World*.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65–184.
- Steen, G. J., Dorst, A. G., Herrmann, J. B., Kaal, A. A., Krennmayr, T. and Pasma, T. (2010a). *Metaphor in usage*. *Cognitive Linguistics*, 21 (4), 757–788.
- Steen, G. J., Dorst, A. G., Herrmann, J. B., Kaal, A. A., Krennmayr, T. and Pasma, T. (2010b). *A Method for Linguistic Metaphor Identification: from MIP to MIPVU*. John Benjamins.
- Urbonaitė, J. (2015). MIPVU: an attempt to apply it to Lithuanian.

<부록> 분석 대상: 한국어 신문보도 텍스트 전문

제목	국민 3 명 중 1 명 확진 ‘엔데믹’ 초읽기?... “밀집·실내선 마스크 반드시 써야”	웹 주소 (URL)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5/09/3R6ZOECDJCP7KKDAKAUASUISE/
출판년도	2022.05.09	문장 수	27

어절 수	490	토큰 수	837
원시 텍스트 전문	<p>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누적 확진자가 1750 만명에 육박하는 등 국민 3명 중 1명 꼴로 코로나 19에 확진된 이력이 있어 신규 감염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달 말 ~ 내달 초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 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엔데믹 (풍토병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가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니기에 '3 밀 환경 (밀집, 밀접, 밀폐)'에 노출된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9 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 수는 8 일 0 시 기준 1754 만 4398 명으로, 이 중 20~60 대 확진자는 1176 만 3587 명 (67%)을 차지하고 있다. 활동량이 적은 노령층보다 20~60 대 확진율이 더 높아 경제 활동 연령층 내에서 확산 위험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p> <p>코로나 19 확산 위험이 낮아진 탓에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음에도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3 일부터 9 일까지 0 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최소 2 만 601 명에서 최대 5 만 1121 명으로, 일평균 3 만 8492 명 수준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30 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 (5 만 8215 명)에 비해 34% 정도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이달 2 일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도입한지 566 일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다. 50 인 이상 집회나 관람객 수 50 명 이상 공연·스포츠 경기 등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최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코로나 19 확산 예측 보고서'에서는 2 주 뒤 신규 확진자가 하루 1 만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보고서는 확진자·접종자·잠재기 등을 대입한 수학 모델을 통해 신규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심은하 숭실대 수학과 교수팀과 이창형 울산과학기술원 수리과학과 교수팀은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4 주 뒤 신규 확진자를 각각 1 만 7480 명과 1 만 5933 명으로 전망했다. 델타 변이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우세종이 변하면서 치명률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국내 코로나 19 누적 사망자는 9 일 0 시 기준 2 만 3400 명으로, 치명률은 0.13%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 월 1 일 코로나 19로 인한 치명률이 0.89%인 점을 감안하면 녁 달 새 0.76%p 나 줄어든 것이다.</p> <p>이미 국민 대다수가 면역을 갖고 있는 만큼, 일반감염과 재감염 사례가 계속 줄어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로 등록하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하면 최소 국민 60~70%는 면역체계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야외에서 코로나 19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실외 마스크 해제가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p> <p>다만 실외 마스크 해제로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이 실내까지 확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외에선 감염 위험이 낮더라도, 실내 환경은 여전히 코로나 19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설명이다. 천 교수는 "식당이나 실내는 밀집도가 높는데, 특히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실내 환기를 생활화하거나 경우에 따라 식당 야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의 상징적 의미가 커 국민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실내는 '3 밀 환경 (밀집, 밀접, 밀폐)'이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되고 사람이 뽁뽁하게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p> <p>치명률은 낮지만 사망자 대부분이 노령층과 영유아층에서 발생하는 만큼 코로나 19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치명률이 낮다는 이유로 방역 대책을 대폭 완화시키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치명률이 낮아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증 편향"이라며 "사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60 세 이상 국민을 보호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도 "엔데믹 과정에서 일상의 사회·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과 동시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p>		

الاستعارة في اللغة الكورية: دراسة تطبيقية لتحديد الاستعارات

باستخدام إجراء جامعة أمستردام MIPVU

منى سراج الدين سعيد زهران

باحث دكتوراه - قسم اللغة الكورية
كلية الألسن، جامعة عين شمس، مصر
monaserag@aslun.asu.edu.eg

أ.د. إيمان السعيد جلال

أستاذ الدراسات اللغوية العربية
كلية الألسن، جامعة عين شمس، مصر
imannelsaidgalal@alsun.asu.edu.eg

أ.د. جونج يونج إن

أستاذ فخري في اللغويات الكورية، كلية العلوم الثقافية
والاجتماعية، جامعة أوسوك، كوريا الجنوبية
ds4nfr@ws.ac.kr

المستخلص: 25

على الرغم من ارتباط الاستعارة عادةً بالأدب والبلاغة، فإنها جزء لا يتجزأ من لغة الحياة اليومية (لايكوف وجونسون، 1980). ينظر علم اللغة المعرفي إلى الاستعارة في اللغة بوصفها أساساً منهجياً للفكر وأساساً في فهمنا للعالم حولنا. وغالباً ما تُستخدم الاستعارة لأنها تقارن الأفكار المجردة التي يصعب فهمها بالأفكار الملموسة التي يسهل فهمها. فيمكن ملاحظة الاستخدام المكثف للاستعارات منذ تفشي جائحة فيروس كورونا. وفي هذه الدراسة، تفحص الاستعارات اللغوية لـ COVID-19 في اللغة الكورية. وعلى نقبض البحث الاستعاري التقليدي، يستخدم هذا البحث نهجاً تصاعدياً للاستعارات اللغوية؛ بدلاً من نهج لايكوف وجونسون (1980) الأكثر استخداماً وانتشاراً في أبحاث الاستعارات الإدراكية. ووفقاً لذلك، فالهدف من البحث هو تطبيق إجراء جامعة أمستردام لتحديد الاستعارات MIPVU على اللغة الكورية ومناقشة الإيجابيات والسلبيات. ومن ثم يتناول هذا البحث أولاً: إجراءات تحديد الاستعارات في ضوء علم اللغة الإدراكي باستخدام MIPVU (Metaphor Identification Procedure Vrije Universiteit) أي 'إجراء تحديد الاستعارات من قبل الجامعة الحرة بأمستردام' (ستين وآخرون، 2010ب)، ويحدد أسباب اختيار هذا النهج لتحديد الاستعارات في الخطاب الصحفي، ثانياً، التطبيق: وقد بلغ عدد الجمل والوحدات المعجمية محل الدراسة 27 جملة و490 وحدة. ثالثاً، يناقش البحث عدداً من الصعوبات عند تطبيق هذا الإجراء على اللغة الكورية؛ وتتمثل هذه الصعوبات بشكل أساسي في كون اللغة الكورية لغة إصاقية، واختلاف الموارد المعجمية المتاحة لها. وبينما يشير البحث إلى هذه المشكلات يقدم أيضاً الحلول لتطبيق MIPVU على اللغة الكورية في نطاق أوسع، وأكثر فاعلية. كما أُثبت أن MIPVU إجراء موثوق فيه لتحديد الاستعارة في اللغة الكورية حيث يقضي على تحيزات الباحث مما يحقق المصادقية.

الكلمات المفتاحية: علم اللغة الإدراكي، اللغة الكورية، الاستعارة، إجراء تحديد الاستعارات من قبل الجامعة الحرة بأمستردام، التقرير الصحفي.

²⁵أتوجه بالشكر والعرفان إلى أساتذة اللغة الكورية في جامعات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الذين حكموا هذا البحث، وأثروه بملاحظتهم القيمة التي أفادت الباحثة منها.

Metaphor in the Korean Language: A study using Metaphor Identification Procedure Vrije Universiteit (MIPVU)

Mona Serag El-Din Said Zahran

PhD Degree Student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Faculty of Al-Asun (Languages)

Ain Shams University - Egypt

monaserag@alsun.asu.edu.eg

Youngin Chung

Honorary Professor of Korean Linguistics

College Of Cultural and Social Sciences

Woosuk University – South Korea

ds4nfr@ws.ac.kr

Iman El-Said Galal

Full Professor of Arabic Linguistics

Faculty of Al-Asun (Languages)

Ain Shams University - Egypt

imanelsaidgalal@alsun.asu.edu.eg

Abstract²⁶

Metaphor is commonly associated with literature and rhetoric; however, it is in fact a part of everyday language use (Lakoff & Johnson, 1980). Cognitive Linguistics views metaphor in language as a systematic underpinning of thought and essential to our understanding of the world. Metaphor is often used because it compares abstract and hard-to-comprehend ideas to concrete and easier-to-comprehend ones. An extensive usage of metaphors can be seen since the outbreak of the Coronavirus pandemic. In this study, linguistic metaphors for COVID-19 in the Korean language are examined. Contrary to traditional research, a bottom-up approach for linguistic metaphors is used; instead of the widely used Lakoff & Johnson (1980)'s top-down approach for conceptual metaphors. Accordingly, the aim of the paper is to apply Steen et al. (2010b)'s metaphor identification procedure of Vrije Universiteit (MIPVU) on Korean and discuss its pros and cons. First, MIPVU and the reasons for choosing it to identify and analyse metaphors are presented. Second, it is applied on each lexical item in a newspaper discourse; where the number of sentences and lexical items studied are 27 and 490, respectively. Third, linguistic issues and operationalisation issues while applying MIPVU are discussed. They are mainly a result of Korean's agglutinative characteristics and the difference in the lexicographic resources available. Although, the paper points out these issues, it provides suggestions for a more effective application of MIPVU in Korean. Nevertheless, MIPVU has proved to be a reliable procedure of metaphor identification in Korean that eliminates researcher biases yielding authenticity.

²⁶ I would like to thank the professors from Korean universities for reviewing this paper. Their insightful comments and suggestions have been invaluable and have enriched this paper.

Keywords: Cognitive Linguistics, Korean language, Metaphors, MIPVU Metaphor Identification Procedure of Vrije Universiteit, Coronavirus pandemic.